

한국가족복지정책에서의 여성정체성

박 미 석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송 인 자*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선임연구원)

본 연구는 성인지적 관점(gender perspective)으로 한국의 가족복지정책에 나타난 여성정체성을 규정하여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된 가족복지정책과 여성복지정책형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 하는데 목적과 의의를 둔다. 더 나아가 성주류화된 가족복지정책의 토대마련을 통해 궁극적으로 성 평등 가족문화와 성평등 사회형성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찰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가족의 구조적 기능적 변화양상을 여성과 관련하여 살펴본다. 가족의 변화는 가족 내 여성의 지위와 역할을 다르게 규정할 것이며 이를 반영하여 가족복지정책이 결정될 것이다. 둘째, 현재 시행중인 가족복지정책의 현황을 개괄한다. 현재의 가족복지정책이 가족구조의 변화와 여성에게 기대되는 다른 역할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가족복지정책에서 여성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탐색한다. 여성의 교육기회확대와 사회변화에 따라 공적영역으로의 진출을 희망하고 있는데 여성들의 욕구가 가족복지정책에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내용을 심도 있게 해결하기 위하여 가족, 가족복지정책, 여성에 관련된 선행연구물과 인터넷자료를 이용하는 문헌연구법을 사용한다.

한국은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와 함께 가족구조가 다양해지고 가족의 기능에 대한 요구도 달라져 왔다. 그러나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는 것에 비해 가족이 지닌 전통적 가치와 구성원의 고유역할에 대한 인식과 기대는 더디게 바뀐다. 전통적으로 가족이 생활하는 사적 공간은 여성의 영역으로 여겨져 왔으며 이러한 경향은 현재에도 암묵적으로 작용하여 시장으로의 여성의 진출에 가족문화는 따라가지 못하여 가족 내에서 여성은 이중삼중의 부담을 안고 있다.

또한 한국사회는 유교적 가부장제에 기인한 강력한 가족주의적 가치를 유지시켜왔으며 사회문제의 많은 부분에 대한 해결을 가족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으며 국가가 주도해야 할 복지가 “가족에 의한 복지”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는 가부장제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신자유주의 논리의 확산으로 “가족을 위한 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에 대한 이완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또한 다양한 사회변화에 따라 다양한 가족이 나타나고 있으나 초혼·혈연·부부중심의 핵가족을 전형적 가족으로 삼아 새로운 가족형태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부족한 상황이다.

가족복지정책에서의 여성은 부양자인 남편의 피부양자로, 공적영역에 진출하는 여성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연금수급권, 보험에서의 보상, 이혼시 재산분할, 모성보호의 문제 등에서 정책적으로 배려 받지 못함에 따라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는 전형적 가족형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여성을 빈곤화시키는 요인이다.